인도문화원리플렛최종.ps



Encounter by chance

나는 인도를 여행한다. 여행 속에는 항상 어떤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진들은 그 만남에 대한 기록들이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마을과 설산 아래 외딴 산골 마을과 나른한 오후가 지나가고 있는 도시의 뒷골목에도 우연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만남은 모두 우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만남에도 다 그만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인연에 의해 오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는 지금, 내 사진 속에 담아온 그들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만남을 주선한다. 내가 사진에 담아온 그들과 또 그 누군가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These photos are documentary of my encounters by chance during my trip to India. I am a traveller.

Travel provides accidental meetings.

Wherever I go,

whether it is a village by an oasis in the desert, or an isolated village under a snowy mountain, whether it is the languorous afternoon in a backstreet of a town,

I happen to have chance encounters.

There must be a reason to encounter someone in our life though it may seem like a coincidence. I believe that some connection from a previous life makes today's encounters.

Here, I'm arranging another meeting for you to have chance encounters through my photographs.

이 리셉션: 2011년 4월 29일 15:30 Reception: 15:30, 29 April 2011



【 주한인도문화원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6-1 여선교회관 1층(주한인도대사관 맞은편)

Tel: 02-792-4257 Fax: 02-795-4258

Indian Cultural Center

1F, The Korea Methodist Women's Society for Christian Service Bldg., 36-1, Hannam-dong, Yongsan-gu, Seoul

Tel: 02-792-4257 Fax: 02-795-4258



Message from Ambassador



About the Photographer



(Skand R. Tayal)

주한인도대사 Ambassador of India

인도 문화원에서 이종선 작가의 사진전 "우연한 만남" 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는 인도의 삶의 모습과 풍경이 담긴 사진 30여 점이 전 시 될 것입니다.

본 사진전이 한국에서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매개체가 되길 바라며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서 양국간의 깊은 유대를 더욱 강화시길 것이라 확신합 니다

The Embassy of India is pleased to organize "Encounter by Chance" - a Photo Exhibition by Mr. Lee Jong-sun at the Indian Cultural Center in Seoul from 29 April - 29 May 2011. The exhibition will feature 30 photographs of life and landscape of India.

It is our hope that the present exhibition will promote understanding of Indian Culture in Republic of Korea and I am confident that this event will receive due attention from Korean art enthusiasts and will further cement the close ties between the peoples of our two ancient civilizations.











■ 사진가 이종선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과 홍익대 산업미술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대학에서 사진을 가르 치는 일을 하였으며, 출판과 광고 등의 분야에서 사진가로 일하 였다. 90년대 후반부터 인도를 여행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장기간 인도의 외딴 곳을 여행하면서 자연, 사람, 동물 등의 조 화로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등 에서 9회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으며 다가오는 5월3일에도 서울 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Lee Jong-sun studied photography at Chung-Ang University and completed his Master's degree from Hong-Ik University. He used to teach photography in universities and now is an editorial and fine arts photographer. Since he started travelling to India in late 1990s, he has been enjoying taking photographs of remote and rural area in India where not so many foreign travellers visit. He shows a harmonious scene of men, animals and the nature through his photography. He has held many solo exhibitions in Korea and Japan. He is planning another solo exhibition in Seoul in May 2011.